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Vol.9 No.2, 31-50, 2026.10.
http://dx.doi.org/10.23089/jdca.2026.9.2.002
pISSN 2635-6856eISSN 2734-0392

예외공간의 로컬리티 : 전주 선미촌에 상속된 배제와 위계

Locality of the Exceptional Space : Inherited Exclusion and Its Hierarchy in Jeonju's Seonmichon

이정은(Jungeun Lee)[1] | [1](제1저자)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Je.lee@jbnu.ac.kr
김건(Geon Kim)[2] | [2](교신저자)전북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소장 | godardkim@jbnu.ac.kr

목 차

1. 들어가며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3. 부여받은 예외, 선미촌
4. 예외는 무엇을 남기는가: 낙인, 소유 그리고 관행
5. 나가며

초 록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언론 보도를 국면별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주 선미촌의 형성과 도시재생을 로컬리티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선미촌은 로컬이 스스로 만든 공간이 아니라 중심(국가)이 할당한 예외공간이다. '묵인-관리 체제' 아래 그 안의 여성들은 법의 보호 밖에서 법의 감시를 받는 호모 사케르였다. 2016년 시작된 문화예술 기반 도시재생은 이 예외공간을 해소하는 듯 보였으나, 포함적 배제는 오히려 재생산된다. 여성은 재생 이전에 이미 퇴거하였고, 예술가는 예산 중단과 함께 철수하였으며, 원주민은 공동화된 공간과 함께 남겨져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세 집단을 등치하지 않는다. 호모 사케르였던 것은 여성들뿐이며, 예술가는 조건부 포함의 철회를, 원주민은 명목상 포함의 주변화를 겪었다. 예외공간은 배제를 균등하게 분배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배제의 위계가 있다. 그러나 배제의 논리는 여성들이 떠난 뒤에도 장소에 남아 약화된 형태로 상속된다. 본 연구는 그 상속의 세 경로를 특정한다. 공간의 표면에 각인된 낙인, 해체되지 않은 소유관계, 그리고 이러한 공간을 처리해야 할 문제로 다루는 행정의 관행이다. 상속은 은유가 아니라 공간과 제도에 남아 작동하는 관성이며 예외공간은 철거나 재생으로 소멸하지 않고 형태를 바꾸어 재생산된다.

※ 키워드 : 로컬리티, 호모 사케르, 예외공간, 선미촌, 배제의 상속

ABSTRACT

By comparing prior scholarship and press coverage across successive phases, this study reinterprets the formation and urban regeneration of Jeonju's Seonmichon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ity. Seonmichon is not the local's own creation but an exceptional zone allocated by the center, the state. Under the "toleration-regulation regime," the women lived as homo sacer, watched by a law that would not protect them. The culture- and arts-based regeneration launched in 2016 appeared to dissolve this space of exception, yet reproduces inclusive exclusion. This study does not equate the three exclusions. Only the women were homo sacer; the artists experienced the withdrawal of a conditional inclusion, the residents the marginalization of a nominal one. Spaces of exception do not distribute exclusion evenly; exclusion has a hierarchy. Yet the logic of exclusion remains in the place after the women left, inherited in attenuated form in later phases. Three channels carry this inheritance: the stigma inscribed on the place's surface, ownership relations never dissolved, and the administrative habit of treating it as a problem to be disposed of. Inheritance is not a metaphor but an institutional inertia: a space of exception survives both demolition and regeneration, reproducing itself in altered form.

※ Keywords : Locality, Homo Sacer, exceptional space, Seonmichon, Inheritance of Exclusion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5S1A5B5A16005521)

• 논문접수 : 2026.09.09. • 최초심사 : 2026.09.17. • 심사완료 : 2026.09.22.

1. 들어가며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에 위치한 선미촌은 1960년대 초부터 60여 년간 존속한 성매매 집결지이다. 도시 외곽이 아닌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며 전주역이 이전한 이후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 전주시는 이곳을 '여성인권과 예술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착수하였다. 사업은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로 명명되었으며 재생이 진행되면서 점차 선미촌 대신 서노송예술촌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단속이 아닌 문화적 접근으로 집결지를 해소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이 사업은 한동안 전국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그러나 2022년 시장 교체와 함께 행정적 지원이 중단되면서 서노송예술촌은 빠르게 쇠락하였다. 최근에는 아파트 재개발 움직임까지 나타나면서 "슬럼화된 도시의 가시적 변화"들이 자본의 가치로 치환되는 국면에 놓여 있다(박은, 2024). 전국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던 공간이 사업 착수 10년 만에 재편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성매매 여성과 예술가, 그리고 원주민이 차례로 겪은 배제다.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은 도시재생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미 이곳을 떠났으며 이후 그 자리를 채운 예술가들은 재정 지원이 중단되면서 철수하였다. 한편 오랫동안 선미촌에 거주해 온 원주민들은 재생에 이어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금, 공동화된 골목에 남겨져 있다. 이는 흔히 재정 지원 중단으로 좌초된 도시재생 사례로 설명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처럼 연속적으로 나타난 배제를 선미촌 내부의 사정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데서 출발한다. 선미촌이라는 공간의 성격을 결정하는 힘은 오랫동안 로컬의 바깥에서 작동해왔다. 집결지가 60여 년간 존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매매를 금지하면서도 이를 묵인한 국가의 선택적 방치가 있었다. 이후 공간을 재편하는 과정에서는 전주시 행정이 그 방향을 결정해왔으며 현재 진행되는 재개발 역시 이러한 외부의 결정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선미촌의 변화는 도시재생의 성공과 실패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장소를 둘러싼 문제는 '로컬이 자신의 성격과 향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바깥의 힘에 의해 규정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옮겨 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로컬리티의 문제로 보고 선미촌에서 배제가 작동해 온 방식을 살피기 위해 조르조 아감벤의 개념을 빌린다. 본 연구가 제기하는 주장은 두 가지이다. 첫째, 예외공간은 그 안에 존재하는 이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선미촌에서 법의 보호 밖에 놓인 채 법의 감시를 받았던 존재는 성매매 여성들이었다. 예술가와 원주민이 경험한 배제는 이와 동일하지 않으며, 보다 약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둘째, 배제의 양상은 집단마다 달랐으나 이를 가능하게 한 논리는 여성들의 퇴거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았다. 동일한 논리가 뒤이어 유입된 이들과 잔류한 이들에게 형태를 달리하여 이어진다. 두 주장을 종합하면 선미촌의 세 집단이 겪은 배제는 서로 분리된 사건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양식으로 반복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선미촌은 그동안 도시재생과 젠더 거버넌스의 사례로 여러 차례 연구되어 왔으나(강슬기, 2021; 성지은, 김경은, 2025; 황수연, 2021b), 공간의 변화를 로컬리티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연속된 배제의 반복을 낙인, 소유 그리고 관행의 구조 속에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아감벤의 예외상태와 포함적 배제를 분석 개념으로 삼아 선미촌이 거쳐온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마다 배제를 결정한 주체와 허용된 포함의 형식,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배제의 양상을 비교한다. 분석에는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와 신문 기사, 언론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한다. 신문 기사는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된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선미촌을 직접 다룬 기사로 한정하였으며, 특히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예산 중단 이후의 변화에 주목한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에 필요한 로컬리티와 호모 사케르 개념을 차례로 검토한 뒤, 선미촌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핀다. 로컬리티는 선미촌이 왜 예외공간이 되었는지를, 호모 사케르는 그 안에서 배제가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2.1 로컬리티, 부여받은 로컬

로컬리티는 일차적으로 한 국가 안의 특정 지역이 지닌 가치와 속성을 뜻한다(문재원, 2016). 로컬리티 논의가 강조하는 것은 그 가치와 속성이 로컬에 고정불변으로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위치의 주체가 그 가치와 속성을 어떻게 측정하고 추인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자원과 권력은 중심(서울)에 집중되었고 로컬은 자신의 가치와 성격을 스스로 정하지 못한 채 중심이 규정하는 바를 받아들여야 했다(김옥선, 2025). 로컬리티 연구는 그 부여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다. 다만 이때 로컬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부터 규정해야 한다. 선미촌이 위치한 전주는 중앙에 대하여 로컬이지만, 선미촌은 그 안에서 다시 주변에 놓여 있었다. 본 연구가 로컬이라 할 때 그것은 선미촌이라는 장소와 그곳에 살아온 이들을 가리키며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전주시 행정은 선미촌의 변화와 방향을 결정해 온 주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로컬리티에 대한 논의는 두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하나는 로컬 내부의 고유성과 특이성을 드러내어 그 가치를 재평가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로컬에서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방향이다. 전자는 로컬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자산을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여기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다. 첫째는 로컬에 고유한 가치가 처음부터 들어 있다고 전제하는 태도다. 이 경우 자칫 폐쇄적 지역주의로 흐르거나 결국 중심의 시각을 되풀이하게 된다. 둘째는 로컬을 '다양성'이나 '차이'의 사례로 손쉽게 분류하는 태도다. 이 경우 그 지역의 구체적 성격이 오히려 가려진다(김용규, 2008).

본 연구는 두 번째 방향, 곧 로컬에서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관점을 택한다. 왜냐하면 선미촌은 고유한 가치를 드러내어 재평가할 대상이 아니라, 중심이 무엇을 부여하였는가를 따져 물어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관점에도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다. 대체로 중심이 로컬에 어떤 속성을 부여하는가를 물을 때, 그 답은 산업·기능·역할과 같은 발전의 언어로 상정되어 왔다. 부산이 국제무역과 공업도시라는 역할을 부여받아 제2의 도시가 되었다는 서술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중심이 로컬에 부여하는 것이 언제나 발전인 것은 아니다. 로컬이라는 말 자체가 중심의 대립 개념으로 쓰이면서 시골이나 폐쇄성 같은 부정적 함의를 갖게 되었다는 지적은 로컬리티 논의 안에서도 있어 왔다(이명수,

2015). 부여되는 것에는 발전만이 아니라 낙인과 법의 유예도 있다. 선미촌이 부여받은 것은 바로 그 법의 유예, 곧 '예외'였으며 그것이 어떻게 할당되고 작동하였는지는 3장에서 다룬다.

2.2 호모 사케르, 예외상태, 포함적 배제

본 연구는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의 개념들을 빌려 선미촌 안에서 배제가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를 분석한다. 아감벤 논의의 출발점은 고대 로마법에 등장하는 한 형상이다. 공동체에서 추방되어 누가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도 쓰일 수 없는 자가 있다. 인간의 법과 신의 법 모두에서 배제된 이 존재가 '호모 사케르(Homo Sacer)'이며, 아감벤은 이 개념을 현대 정치철학에 재도입하였다(Agamben, 1995/2008). 법이 이 존재를 보호하지 않으면서도 관할 밖으로 내보내지는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면 이러한 지위는 생기지 않는다. 호모 사케르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법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감벤은 법을 세우고 또 정지시킬 수 있는 이 힘을 주권 권력으로 규정한다. 주권 권력은 권리를 가진 존재로 대우받는 삶(bios)과 살아 있다는 사실만 남은 삶(zoé)을 구분한다. 아감벤은 후자를 '벌거벗은 생명(bare life)'이라 부른다.

이런 상태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될 때, 아감벤은 그것을 '예외상태'라 규정한다. 예외상태는 법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다. 법은 그대로 있고 다만 적용되지 않을 뿐이며 적용하지 않겠다는 결정 자체가 법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예외상태 개념은 칼 슈미트가 "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라고 규정한 데서 비롯한다(Agamben, 2003/2009; Schmitt, 1922/2010). 예외상태가 특정한 구역에 경계를 갖추고 지속될 때, 그 구역은 예외공간이 된다(황수연, 2021b). 법이 보호하지도 추방하지도 않는 이 관계를 아감벤은 '포함적 배제(inclusive exclusion)'라 부른다. 이는 법적 관계를 존속시킨 채 이루어지는 배제이며 완전한 방치나 무관심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아감벤의 논의는 예외가 특정한 장소에 발생하는 조건을 설명하지 않는다. 선미촌이 낙인의 장소가 된 이유를 아감벤의 개념들로는 해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감벤의 개념들로 선미촌 내부에서 작동한 배제의 논리와 그 위계를 드러내고, 로컬리티의 논의를 통해서는 예외가 왜 이 로컬에 배치되었으며 누가 그 배치를 결정하였는가를 묻는다.

이상의 개념들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쓴다. 호모 사케르는 집결지 시기 선미촌 여성들이 놓여 있던 지위를 가리키고, 예외상태는 그 지위를 가능하게 한 묵인-관리 체제의 성격을 밝히며, 포함적 배제는 여성들이 떠난 뒤 예술가와 원주민에게까지 이어진 배제의 형식을 분석하는 데 활용한다. 포함적 배제를 상위의 분석 범주로 두고 그 아래 예술가가 놓인 자리를 조건부 포함으로, 원주민이 놓인 자리를 명목상 포함으로 구별한다. 조건부 포함은 언제든 철회될 수 있는 포함이고 명목상 포함은 선택지가 미리 정해진 채 주어지는 포함이다. 포함적 배제가 아감벤에게서 온 개념이라면 뒤의 두 개념은 선미촌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가 세운 개념이다.

여기서 한 가지를 구별해두어야 한다. 호모 사케르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지위의 유무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 기준에서 볼 때 선미촌에서 호모 사케르는 성매매 여성들뿐이며, 예술가와 원주민은

그 지위에 있지 않았다. 이들까지 호모 사케르로 명명하면, 국가가 60여 년간 관리해 온 여성들의 배제가 조건부 포함의 철회나 명목상 포함의 주변화와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세 집단은 하나의 논리로 연결된다. 그것은 호모 사케르가 아니라 포함적 배제다. 성매매 여성은 관리와 검진의 대상으로, 예술가는 재생의 도구로, 원주민은 수혜자로 각각 포함되었다. 세 경우 모두 포함된 뒤에 배제되었고, 그 결정은 언제나 바깥에서 내려졌다.

다만 포함의 성격과 배제의 양식은 같지 않았다. 예외공간은 그 안의 존재들을 균등하게 배제하지 않는다. 배제에는 위계가 있다. 그리고 배제는 벌거벗은 생명이 사라진 뒤에도 이어진다. 본 연구는 이 지속을 배제의 상속이라 부른다. 상속되는 것은 피해가 아니라 배제가 성립하는 조건이며, 그 조건이 장소에 존속하면서 뒤이어 그곳에 놓이는 이들의 포함 형식과 결정권을 제약한다.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3장에서, 그 조건이 무엇인지는 4장에서 밝힌다.

2.3 선행연구 분석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는 선미촌의 도시재생을 직접 다룬 연구이다. 박연정과 김훈(2019)은 재생의 핵심을 거버넌스 활동과 경계 허물기로 규정하며 분리되어 있던 집결지가 개방적 공간으로 전환된 과정을 추적하였다. 강슬기(2021)는 예술가들이 사회참여예술을 통해 대안적 담론을 형성하였다고 평가하는 한편, 성매매 여성들이 '여성인권' 슬로건 안에 담론적으로 포함되면서도 실질적 의사결정에서는 배제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김용비와 김진아(2021)는 예술가들이 작품의 표현 범위를 두고 사업 주체와 갈등하였고 사업 방향에 관한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도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소태우와 최현석(2022)은 낙인화된 장소기억이 문화예술 재생을 통해 전환될 가능성을 탐색하였고, 성지은과 김경은(2025)은 정책 지원의 부족과 거버넌스 갈등이 재생의 지속가능성을 제약하였음을 밝혔다. 이 연구들은 재생의 성과와 취약성을 함께 다루었으나, 대체로 사업의 성패를 평가하는 데 머물렀다. 그 결과 예산 중단 이후의 국면을 추적하거나 이러한 취약성을 로컬이 스스로 자신의 지속 조건을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로 확장하여 분석하지는 않았다. 또한 재생 과정에 참여한 예술가가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었는지 역시 개념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들의 위치를 '조건부 포함'으로 개념화한다.

둘째는 집결지의 예외성을 아감벤의 개념으로 이론화한 연구다. 서정우(2011)는 광주 대인동 집결지 안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종사 유형에 따라 나뉘고 한쪽이 다른 쪽을 밀어내는 구조를 포함적 배제로 분석하였으며, 김희식(2016)은 개항 이후 100여 년의 매춘공간을 공공정책의 산물로 재구성하고 국가가 이 공간을 예외상태로 인정해왔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두 연구의 분석 단위는 각각 특정 시점의 집결지 내부와 100여 년에 걸친 전국적 정책사에 한정되어 있어 하나의 장소에 차례로 놓인 집단들에게 동일한 배제의 논리가 반복되는지는 분석되지 않았다. 황수연(2021b)은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와 예외상태 논의를 도시 공간에 적용하여 '예외공간'을 정의하고, 성매매 집결지를 국가가 구획해 온 예외공간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선미촌에 대해서는 젠더 거버넌스를 통한 '회복적 해체'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논의가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하다. 한편 황수연의 후속 연구(2021a)는 인천 옐로우하우

스의 폐쇄 과정을 민간 재개발에 의한 사례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행정 주도의 폐쇄가 전주 선미촌에서 관찰된다고 밝히며 이를 별도의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그 과제를 이어받되, 예외공간을 로컬과 중심의 관계로 묻는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와 차별화된다.

셋째는 이 예외를 만들어낸 정책의 역사를 다룬 연구다. 박정미(2011)는 해방 직후부터 2005년까지의 성매매 정책을 추적하여 국가가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동시에 특정 지역을 지정하고 등록과 강제 검진으로 이를 관리해 온 이중 구조를 '묵인-관리 체제'로 개념화하였다. 금지와 관리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치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기지촌 성매매 정책을 검토하여 성매매 금지 법률이 존속하는 동안에도 행정부의 명령·규칙과 조례가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었음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유예되고 법의 집행과 위반을 구분하기 어려워진 상태를 '예외상태'로 규정하였다(박정미, 2015). 이 두 연구는 전국적으로 형성된 정책과 법령의 구조에 초점을 두었고, 이러한 제도적 체계가 개별 로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였는지는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이상의 검토에서 확인되듯, 선미촌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중심과 로컬의 관계 속에서 세 집단의 배제를 관통하는 구조적 논리와 위계, 그리고 이러한 배제가 시차를 두고 재생산되는 경로는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공백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부여받은 예외, 선미촌

선미촌은 1950년대 말 한국전쟁 이후 전주역 주변에 성매매 업소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다. 1960년대 초 본격적인 집결지로 발전하였으며 1980년대에 호황기를 맞이하였다가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점진적으로 쇠퇴하여 2021년 12월 공식 폐쇄되었다(박연정, 김훈, 2019; 홍성철, 2007). 이 장은 선미촌의 60여 년 역사를 세 차례의 배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이 장소가 예외공간으로 형성된 과정을 검토하고 이어 여성과 예술가, 원주민이 차례로 밀려난 과정을 추적한다.

3.1 묵인-관리 체제와 로컬의 비자율성

한국의 성매매 집결지는 처음부터 국가 권력의 개입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항 이후 일본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명목으로 업소를 집단화한 이래, 미군정기의 기지촌을 거쳐 1960~70년대에 이르기까지 성매매는 사실상 국가의 관리 아래 있었다(홍성철, 2007).

묵인-관리 체제가 법과 행정의 형식을 갖춘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다(박정미, 2011).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정부는 곧이어 성매매가 묵인되는 특정 지역을 지정하고 감염된 여성을 강제 치료하는 성병관리소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금지와 관리가 나란히 작동하는 구조가 제도화되었다. 법을 폐기하지 않은 채 그 적용만을 유예하는 이 구조가 곧 예외상태다.

이 대목을 로컬리티의 관점에서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 1962년 전주에서 특정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원동 3가였으며(김희식, 2016), 당시 서노송동 일대에서 형성·확대되고 있던 선미촌은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은 60여 년간 선미촌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 이는 선미촌 역시 법적 금지와 실제 집행이 분리된 예외적 통치체제 아래 놓여 있었으며, 예외의 할당이 반드시 명시적인 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로컬을 성매매 집결지로 만들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그곳에 살던 이들에게는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기지촌이 미군 주둔지 인근에 형성되고 집결지가 역과 항구 주변에 자리한 것도 로컬의 내재적 속성에 따른 결과가 아니었다. 성매매를 제거하기보다 특정 공간에 한정하여 관리하려는 중심의 필요가 그 위치와 성격을 규정하였다. 로컬의 가치와 속성이 중심에 의해 부여되어 왔다는 점은 여기에서 확인된다. 부산이 국제무역과 공업도시라는 역할을 부여받아 제2의 도시가 되었다면, 선미촌은 '묵인된 성적 배출구'라는 기능을 부여받아 도시 내부의 예외공간이 되었다. 두 경우 모두 로컬이 자신의 성격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선미촌이 중심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발전이 아니라 낙인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심의 필요는 집결지의 입지에서도 확인된다. 기지촌과 집결지는 대체로 유동인구가 많고 익명성이 확보되기 쉬운 지역에 형성되었다(이현재, 2008). 다만 이러한 입지적 특성이 곧 도시 외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선미촌은 전주의 변두리가 아니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였다. 즉 예외는 도시 바깥으로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부에 격리되는 방식으로 공간화되었다. 법 안에 붙잡아 둔 채 배제하는 포함적 배제가 공간의 배치로도 나타난 것이다. 법은 성매매를 금지하지만, 주권 권력은 스스로 이 법을 유예함으로써 집결지라는 예외공간을 존속시킨다. 그 안의 여성들은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면서 국가의 감시와 통제에 종속된 호모 사케르로 살아왔다. 요컨대 선미촌에는 두 겹의 비자율성이 포개져 있었다. 로컬은 자신이 예외공간이 되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였고 그 안의 여성들은 자신이 벌거벗은 생명이 되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그 예외공간이 어떤 경계로 구획되었는지는 다음 절에서 살펴본다.

3.2 삼중의 경계와 첫 번째 퇴거

선미촌은 도시의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물리적·사회적·인식적 경계에 의해 분리된 공간이었다. 물리적으로는 특정 골목으로 구획되었고, 사회적으로는 불법의 공간으로 낙인찍혔으며, 인식적으로는 시민들이 기피하는 곳이었다(박연정, 김훈, 2019). 이러한 삼중의 경계는 전주라는 하나의 로컬 내부에 다시 중심과 주변을 만들어냈다.

경계는 공간을 가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놓인 이들의 법적 지위까지도 갈라놓았다. 선미촌 안의 여성들은 1957년부터 시행된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주 2회의 성병검진 대상이 되었다(박정미, 2015).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은 이들을 보호하지 않았으나 국가는 이들의 신체를 등록하고 검진하였다. 이들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관리되어야 할 신체로 다루어진 것이다. 법의 보호 밖에 둔 채 건강과 생물학적 생존만을 관리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것이 벌거벗은 생명의 상태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은 선미촌의 법적 지위를 바꾸었지만, 그 안의 여성들의 삶을 곧바로 개선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이들은 이중적 배제에 놓였다. 한편으로는 성매매 구조 안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범죄자로 규정되면서 사회적 지원 체계에서도 배제되었다. 법의 강화가 곧 당사자의 보호로 이어지지 않는 이 역설은 예외공간의 존재들이 법의 안과 밖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는 조건을 다시 확인시킨다. 여기서도 결정은 로컬 바깥에서 내려졌다. 집결지의 존속을 가능하게 한 것도 국가였고 이를 불법의 영역으로 옮긴 것도 국가였으며, 그 두 결정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였던 것은 선미촌과 그 안의 여성들이었다.

2016년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무렵 선미촌의 업소 수는 이미 크게 감소한 상태였다(강슬기, 2021). 도시재생이 '여성인권의 회복'을 내세웠을 때 정작 그 대상이었던 여성들의 상당수는 이미 선미촌을 떠난 뒤였다. 이것이 선미촌이 경험한 첫 번째 퇴거이며, 벌거벗은 생명의 소멸이라 부를 수 있는 사건이다. 주목할 것은 이 퇴거가 도시재생의 배경이 아니라 그 성립 요건이었다는 점이다. 여성들이 떠난 자리는 '여성인권의 공간'으로 재편되었고, 여성의 부재 위에서 여성인권을 표방하는 도시재생이 전개되었다.

3.3 예술가의 진입과 조건부 포함

성매매 여성들이 선미촌을 떠난 자리에 도시재생의 주역으로 등장한 것은 젊은 예술가 집단이었다. 전주시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를 내걸고 2022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총 210억 원을 들여 빈집과 성매매 업소를 매입하였다. 사업은 전면 철거가 아닌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점진적 기능 전환 방식을 취하였다(황수연, 2021b). 이로써 집결지 일대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2018년 예술책방 '물결서사'가 문을 열었고, 이어 갤러리 '뜻밖의 미술관', 성평등 플랫폼 '성평등전주', 새활용센터 '다시 봄', '놀라운 예술터'가 조성되었다. 예술가들은 이 공간들에서 활동하며 배제의 장소를 창작과 교류의 자리로 바꾸어놓았다. 선미촌 재생이 전국적 주목을 받은 것도 이 활동을 통해서였다(강슬기, 2021).

주목할 것은 이 공간들이 유지된 방식이다. 전주시가 직접 운영한 것은 '노송늬우스박물관' 하나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위탁으로 지원되었다(김창효, 2024). 예술가들이 구성한 장소의 의미는 실재하였으나, 그 공간들을 존속시킨 근거는 위탁 계약이었다. 계약은 갱신되지 않을 수 있고 예산은 편성되지 않을 수 있다. 곧 이들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지는 행정의 연속성에 달려 있었다. 이 국면에서도 결정의 주체는 로컬 바깥에 있었다. 재원은 국비와 시비였고, 사업의 존폐를 판단하는 것도 행정이었다. 예술가들에게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의미를 지속시킬 권한이 없었다. 이 취약성은 운영이 미숙하였거나 협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예술가들이 스스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일부로 받아들여졌고, 그 포함에는 처음부터 조건이 따랐기 때문이다.

예술가들에게 허용된 포함은 언제든 철회될 수 있었다. 이것이 조건부 포함이다. 철회의 조건은 재정만이 아니었다. 작품의 주제와 사업의 방향은 예술가들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김용비, 김진아, 2021).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가 모두 바깥에서 정해졌다. 예술가 집단은 예외공간을 정상화하기 위한 도구로 포함되었지만, 그 포함의 조건은 예산과 표현의 범위라는 두 가지 결정이었다. 이러한 구조는 선미촌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술가는 슬럼화된 공간의 이미지를 바꾸는 수단으로 동원되지만 그 성과가 행정적·경제적 가치로 치환되는 순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다. 이는 문화주도

적 젠트리피케이션 논의가 지적해 온 구조다(류연택, 2022). 예술가에게 허용된 조건부 포함은 처음부터 배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3.4 예산 중단과 두 번째 퇴거

전주시는 2022년 시장 교체를 전후로 서노송예술촌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재생사업을 주도해 온 '서노송예술촌팀'도 같은 해 조직개편을 통해 해체하였다. 중단의 이유에 대해 전주시의 도시정비 부서는 "문화재생사업은 원래 선미촌 퇴출이 목적이었다"라고 밝혔다(김창효, 2024). 예산이 끊기자 예술가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였다. 남아 있던 예술인들은 시민들의 발길이 끊겼다고 토로하였다(김창효, 2024). 선미촌을 거쳐 간 예술인들은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였고 많은 예술인들이 쫓기듯 그곳을 나왔다고 증언하였다(임충식, 장수인, 2024). 이것이 두 번째 퇴거다.

예산 중단의 여파는 사람에게만 미치지 않았다. '서로돌봄플랫폼'은 개소를 앞두고 있었으나 공사 중인 상태로 남았고 성평등복합문화공간용으로 매입한 건물은 그대로 방치되었다(김창효, 2024).

이 퇴거는 첫 번째 퇴거와 성격이 다르다. 여성들의 퇴거는 오랜 관리와 배제가 축적된 결과였고 이주와 생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예술가들의 철수는 재정 지원의 단절이라는 단일한 계기에서 비롯되었고 이들에게 선미촌은 삶의 근거가 아니라 활동의 근거였다. 삶의 근거를 잃는 것과 활동의 근거를 잃는 것은 서로 다르지만, 두 경우 모두 그곳의 존재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바깥의 결정으로 떠나야 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한 논리의 산물이다. 퇴출이 목적이었다는 발언은 예술가의 포함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음을 행정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3.5 원주민의 주변화와 명목상 포함

예술가들이 떠난 뒤 선미촌은 다시 공동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 남아 있던 것은 오랫동안 이곳에 거주해 온 원주민들이었다. 이들은 도시재생의 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사업이 축소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직접 마주해야 했다.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행사가 열리던 시기에 비해 골목을 찾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고 증언하였다(김창효, 2024). 도시재생을 통해 유입되었던 사람과 활동이 사라지면서 원주민들은 다시 공동화된 공간에 남겨졌다.

선미촌의 재쇠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2022년 이후 이어져 온 구조적 과정이다. 공동화와 방치의 문제가 다수의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보도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4). 그 사이 선미촌 일대에 6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024년부터 추진되어 2026년 3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문준혁, 2026). 이로써 재개발은 검토 중인 구상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올라선 사업이 되었으며, 선미촌은 자본이 주도하는 또 다른 재편에 직면해 있다.

형식상 재개발은 주민의 동의를 거쳐 추진되므로 원주민들은 마침내 결정의 주체가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재개발에 동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뿐이다. 도시재생이 남긴

것은 빈 건물과 인적 끊긴 골목이었고, 재개발은 그 공동화를 해소할 선택지로 제시된다. 예산 중단과 전담 단위 해체에 이어, 재개발 국면에서 행정은 이제 민간이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취한다(박은, 2024). 재생을 멈춘 것은 행정이었으나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자본이다. 원주민에게 형식적인 결정권은 주어져 있으나, 선택 가능한 범위가 외부에 의해 이미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자율성에 기반한 선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주민의 경우는 성매매 여성들이나 예술가들과 또 다르다. 이들은 물리적으로 퇴거당하지 않았고, 재산과 발언권을 지녔으며, 실제로 언론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재생과 재개발이 차례로 추진되는 동안 자신이 살아온 장소에 관한 결정에서는 계속 배제되었다. 이것은 벌거벗은 생명도 조건부 포함도 아닌 상태다. 본 연구는 이를 명목상 포함으로 규정한다. 명목상 포함이란 결정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선택지가 이미 정해진 뒤에 참여하게 되는 위치를 가리킨다.

3.6 배제의 위계와 상속

앞의 절들에서는 여성과 예술가와 원주민이 배제된 과정을 국면별로 검토하였다. 이 절에서는 세 경우를 나란히 놓고 두 가지 물음을 살펴본다. 첫째, 배제를 결정한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는 배제의 결정 구조, 곧 각 국면에서 누가 공간의 성격과 구성원의 위치를 결정하였는가에 관한 물음이다. 둘째, 세 집단이 겪은 배제는 동일한 성격이었는가. 이는 배제의 위계, 곧 세 집단이 각각 무엇을 잃었으며 그 배제의 성격이 어떻게 달랐는가에 관한 물음이다. 〈표 1〉은 다섯 국면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국면마다 배제된 집단과 그들에게 허용된 포함의 형식, 배제가 취한 양식, 그 배제를 결정한 힘을 정리한 것이다. 마지막 두 열이 위의 두 물음에 대응한다.

〈표 1〉 선미촌 예외공간의 연속적 배제와 그 위계

국면	시기	배제된 집단	포함의 형식	배제의 양식	배제를 결정한 힘
존속기	1960년대 ~2004년	성매매 여성	관리·검진 대상	벌거벗은 생명	국가의 묵인–관리 체제
이행기	2004년 ~2015년	성매매 여성 (1차 퇴거)	‘여성인권’ 속 담론적 포함	지원 없는 소멸	법적 금지·사회적 낙인
도시재생기	2016년 ~2021년	예술가	재생의 도구	조건부 포함	국비·시비 예산
재쇠퇴기	2022년~	예술가 (2차 퇴거)	—	포함의 철회	예산 중단·행정 철수
재개발 국면	2024년~	원주민 (3차 주변화)	수혜자로 상정	명목상 포함	자본의 논리

이 표에서 확인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배제를 결정한 힘은 일관적이다. 각 국면에서 그 힘은 언제나 로컬 바깥에 있었다. 국가의 정책과 법에서 행정의 예산으로, 다시 자본으로 옮겨 갔을 뿐이다. 선미촌은 그 안의 존재들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바깥의 필요에 따라 거듭 재편되어온 예외공간이었다.

둘째, 그러나 배제의 양식은 세 집단에 동일하지 않다. 성매매 여성에게는 신체와 생명에 대한 직접적 관리와 법적 보호의 박탈이 작동하였고 예술가에게는 조건부 포함의 철회가, 원주민에게는 장소의 미래를 결정할 선택권의 제한이 나타났다.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본 연구의 핵심 논점이다. 흔히 세 집단이 겪은 일은 '똑같이 밀려났다'는 식으로 등치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등치는 정확하지 않으며 여성들이 겪은 배제의 성격을 가린다. 신체와 생명이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활동이나 선택권을 잃는 것과 동일한 성격의 배제로 볼 수 없다. 예술가와 원주민은 호모 사케르가 아니었다. 아감벤의 틀은 벌거벗은 생명을 누구나 놓일 수 있는 자리로 제시하지만, 그 자리에 실제로 놓이는 것이 누구인가는 묻지 않는다. 선미촌에서 그 자리에 놓인 것은 성매매 여성들뿐이었다.

그럼에도 세 집단 모두에는 같은 논리가 작동한다. 이 논리가 포함적 배제다. 선미촌에서 세 집단은 공간의 성격과 미래를 스스로 정하지 못한 채 바깥에서 정해진 조건 안에서만 포함되었다. 여기서 도출되는 것이 배제의 상속이라는 논제다. 포함적 배제는 여성들이 떠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배제가 성립하는 조건이 장소에 남아, 그곳에 놓인 이들에게 약화된 형태로 되풀이되었다. 예술가들에게 이어진 것은 벌거벗은 생명이 아니라 조건부 포함이었고, 원주민들에게는 명목상 포함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매매 여성의 퇴거는 도시재생의 명분을 만들었고 예술가의 유입은 재생을 성과처럼 보이게 하였다. 예산 중단은 예술가의 철수를 낳았고 그 결과는 원주민이 감당해야 할 공동화와 재개발로 귀결되고 있다. 한 국면에서 포함되었던 집단이 다음 국면에서 밀려나고, 그 배제가 남긴 결과가 다시 다음 재편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예외공간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통해 존속해왔다.

4. 예외는 무엇을 남기는가: 낙인, 소유 그리고 관행

앞 장은 예외공간이 배제를 상속한다는 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상속되는 대상과 그 작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않으면, 배제의 상속은 분석적 개념이 아니라 은유에 그친다. 이 장은 그 경로를 낙인과 소유와 관행으로 나누어 밝힌다. 세 경로는 3장에서 검토한 국면들에 걸쳐 반복해서 나타난 조건이다. 낙인은 공간의 표면에, 소유는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에, 관행은 행정의 문서와 조직에 자리한다.

4.1 각인된 낙인

선미촌은 물리적·사회적·인식적 삼중의 경계로 둘러싸인 예외공간이었다. 업소가 폐쇄된 뒤에도 그 경계는 온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영업이 중단되면서 불법의 공간이라는 사회적 규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으나, 물리적 구획은 골목의 형태로 남았고 인식적 경계는 더 오래 지속되었다. 업소가 폐쇄되고 여러 해가 지난 뒤에도 시민들은 이곳에 가기를 꺼렸고 밤에는 인근 주민조차 통행을 삼갔다(김창효, 2024). 낙인은 영업 행위에 결부되어 있다가 그 행위와 함께 소멸하는 것이 아니었다.

선미촌의 도시재생은 철거가 아니라 보존을 택하였고 그 결과 골목의 구획과 그것이 그어온 경계가 함께 남았다. 그러나 이는 보존이 낙인을 만들어냈다는 뜻이 아니다. 낙인은 이미 60여 년간 그 자리에

있었고 철거를 택하였더라도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화를 명분으로 한 도시 개조가 매춘을 도시 곳곳으로 흩어놓았던 선례들에서는 철거가 이루어졌으나, 새로 형성된 자리마다 같은 낙인이 다시 생겨났다(이현재, 2008). 보존과 철거라는 공간적 개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낙인은 지속될 수 있다.

즉, 낙인은 사람에게 부여된 뒤 공간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특정한 장소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국가가 규정한 것은 누가 성매매를 하는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성매매가 묵인될 수 있는가였다. 이러한 점에서 예외와 낙인은 개인이 아니라 장소에 결부된다. 따라서 그 장소를 쓰는 사람이 바뀌어도 낙인은 그 자리에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낙인은 상속의 첫 번째 경로가 된다.

4.2 해체되지 않은 소유

집결지의 물적 기반은 업소가 아니라 건물과 토지였다. 2004년의 성매매방지법은 영업을 불법화하였으나 그 규율은 소유관계에 미치지 않았다. 업소는 폐쇄되었고 여성들은 떠났으나 토지와 건물을 둘러싼 소유관계가 도시재생의 해체 대상이 된 것은 아니었다. 전주시가 매입한 건물은 재생의 거점이 되었고 그 밖의 토지와 건물은 민간의 소유로 남았다.

이 구조는 행정의 발언에서 확인된다. 전주시의 도시정비 부서는 재생사업에서 물러나며 “이제는 행정에 기대지 말고 토지주나 건물주 등 민간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였다(김창효, 2024). 같은 부서는 건물주와 토지주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으며 예산이 부족하여 매입도 어렵다고 밝혔다(임충식, 장수인, 2024). 이러한 발언은 오랫동안 묵인-관리 체제 아래 존속해 온 이 공간의 처리 책임이 소유자에게 이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유관계는 재개발 국면에 이르러 등장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재생 국면에서부터 누가 그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가르는 조건으로 작동하였다. 한 예술인은 빈집이 있어도 임대료가 높아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다(김창효, 2024). 이는 소유관계에서 비롯된 임대료가 예술가의 공간 진입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조건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예산이 중단된 이후 예술가들이 철수해야 했던 것 역시 이들이 공간의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하여 사용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예술가는 소유관계에 의해 제약되는 조건부 포함이었다.

재개발 국면에서 이 구조는 전면에 드러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기초로 추진된다. 재개발이 주민의 동의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토지등소유자(토지·건물 소유자)뿐이다. 본 연구가 원주민의 위치를 명목상 포함으로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집결지가 해체될 때 사라진 것은 성매매 영업과 여성들이었고 그 공간을 누가 소유하는가라는 관계는 그대로 남았다. 이는 동일한 소유자가 계속해서 공간을 소유해 왔다는 의미가 아니다. 소유자는 바뀔 수 있지만,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공간에 대한 권한을 구분하는 관계 자체는 지속된다.

물론 소유관계 자체가 선미촌에 고유한 것은 아니다. 소유는 다른 도시재생과 재개발에서도 작동하는 일반적인 제도적 조건이다. 선미촌에서 주목할 것은 집결지 해체 이후에도 소유의 여부가 공간에 대한 진입과 결정의 자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계속 작동했다는 점이다. 도시재생기에는 누가 그 공간에 들어와 머물 수 있는지를, 재개발 국면에서는 누가 그 공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였다.

따라서 상속된 것은 소유라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소유 여부를 통해 진입과 결정의 자격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소유는 상속의 두 번째 경로가 된다.

4.3 바뀌지 않은 관행

행정이 이 공간을 다루는 방식은 60여 년간 달라지지 않았다. 묵인-관리 체제에서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정책의 이름은 바뀌었으나 이 공간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문제로 다루는 인식 틀은 유지되었다. 문화재생사업의 목적이 애초에 선미촌 퇴출이었다는 행정의 발언이 그 연속성을 대변한다. 퇴출은 재생이 아니라 정화의 언어이며, 묵인-관리 체제가 사용하던 주요 담론에 속한다. 국가가 이 공간을 관리 대상으로 삼았을 때와 지자체가 이 공간을 재생 대상으로 삼았을 때,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동일하다.

관행은 조직의 형태로도 확인된다. '서노송예술촌팀'의 해체가 그 사례다. 사업의 종료와 함께 전담 단위가 해체되는 것은 한시 사업의 일반적 귀결이다. 그러나 60여 년간 단속과 관리와 재생의 대상이었던 이 공간은 전담 부서가 해체되면서 행정의 관리 범위 밖에 놓이게 된다. 2026년 재개발 국면에서 전주시가 운영 중인 미술관과 센터의 대체 부지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못한 것 역시 같은 인식 틀 안에 놓여 있다(문준혁, 2026). 미술관과 센터는 옮길 수 있으나 그 자리에서 형성된 관계와 활동은 대체될 수 없다. 행정의 검토는 옮길 수 있는 것에만 미친다. 이렇게 관행은 상속의 세 번째 경로가 된다.

세 경로가 각각 어디에 남아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누구에게 이어지는지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배제의 상속을 매개하는 세 경로

경로	남는 자리	작동의 증거	상속의 수신자
낙인	공간의 표면	시민의 방문 기피와 야간 통행 회피	예술가·원주민
소유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	임대료로 인한 진입 제약, 토지등 소유자 동의	예술가·원주민
관행	행정의 문서와 조직	행정의 퇴출 목적 진술, 전담 단위 해체	세 집단 모두

세 경로는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낙인은 이곳에 오기를 꺼리게 만들고, 소유는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임대료로 가르며, 관행은 이미 자리 잡은 이들의 활동을 행정의 계획 밖에 둔다. 그러나 결과는 같다. 이 공간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감당할 조건은 진입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조건을 정하는 권한은 이 공간 안에 없다. 상속이 은유가 아닌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배제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건네지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남은 제도로서 다음에 오는 이들에게 작동한다.

이러한 상속의 구조는 문화주도적 젠트리피케이션 논의와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 예술가가 도시재생의 촉매로 참여한 뒤 공간의 가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다시 밀려나는 현상은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에서도 반복해서 지적되어 왔다(류연택, 2022). 그러나 이러한 관점만으로 선미촌에서 나타난 배제의 전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논의가 주로 자본의 이동과 부동산 가치의 변화를 중심으로 공간 재편을 설명한다면, 선미촌의 배제는 자본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이전부터 작동해왔다. 선미촌의 성격을 처음 규정한 것은 부동산 가치의 변화가 아니라 성매매를 금지하면서도 특정 공간에서 이를 묵인하고 관리했던 국가의 통치 방식이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낙인과 행정의 관행은 도시재생과 재개발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이후 소유와 자본의 논리가 결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배제로 이어졌다. 따라서 선미촌의 현재를 단순히 젠트리피케이션의 결과로 보기보다 오랫동안 축적된 배제의 구조에 자본의 논리가 뒤늦게 결합한 국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본 연구는 로컬리티 논의와 아감벤의 개념들을 접목하여 전주 선미촌에서 60여 년에 걸쳐 반복된 배제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선미촌은 로컬이 스스로 만든 공간이 아니라 중심의 필요에 따라 예외가 할당된 공간이었다. 국가는 성매매를 금지하면서도 특정 공간에서는 이를 묵인하고 관리하였으며, 로컬은 이러한 결정에 참여하거나 이를 거부할 충분한 자율성을 갖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미촌에 부여된 것은 발전이나 문화와 같은 긍정적 속성이 아니라 낙인이었다.

2016년의 문화적 도시재생은 이 예외공간을 해소하는 듯 보였으나 배제의 논리는 형태와 강도를 달리하며 이어졌다. 다만 본 연구는 세 집단이 경험한 배제를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호모 사케르의 위치에 놓였던 것은 성매매 여성들이었으며, 예술가는 조건부 포함의 철회를, 원주민은 명목상 포함의 주변화를 경험하였다. 세 집단의 배제는 그 성격과 강도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를 관통하는 구조적 연속성이 존재한다. 그것은 배제를 결정하는 힘이 로컬의 바깥에서 작동해왔으며, 여성들이 떠난 뒤에도 그 논리가 장소에 남아 이후의 집단에 약화된 형태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기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성매매 집결지를 로컬리티의 문제로 재설정하여 로컬이 부여받는 속성이 발전이나 문화뿐만 아니라 '예외'일 수도 있음을 밝혔다. 둘째, 세 집단의 배제를 동일시하지 않고 그 차이와 위계를 구분함으로써 예외공간에 형성된 배제의 논리가 이후의 집단에도 다른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배제의 상속 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이러한 상속을 매개하는 경로를 낙인과 소유, 그리고 관행으로 구체화하여 배제의 상속이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장소에 남은 사회적 인식과 권리관계, 행정적 처리 방식을 통해 작동하는 과정임을 규명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문헌과 이차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기에 당사자의 직접적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선미촌을 존속시킨 묵인-관리 체제는 오래전에 해체되었지만, 그 예외가 남긴 선명한 자국은 여전히 뚜렷하다. 낙인, 소유 그리고 관행의 구조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물리적·사회적·인식적 경계를 재생산한다. 따라서 예외공간의 해체는 물리적 철거나 정책적 재생만으로 완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공간을

둘러싼 관계와 결정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배제는 다른 형태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미촌이 집결지에서 예술촌으로, 다시 재개발의 대상으로 전환되어 온 과정은 이러한 지속성을 보여준다. 선미촌을 둘러싼 핵심적인 물음은 이 공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그치지 않는다. 누가 그 변화를 결정하며, 그 결정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동안 공간의 변화와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작업이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구술사를 통해 여성, 예술가, 원주민이 각 시기의 변화를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들의 서사를 비교함으로써 낙인, 소유 그리고 관행이 각 집단에 어떠한 방식과 강도로 작동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본 연구가 제시한 '배제의 상속'이 실제 당사자의 경험에서도 확인되는지를 검토하고, 그 개념의 설명 범위와 한계를 보다 명료하게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슬기 (2021). 성매매 집결지의 문화적 도시재생 내 예술가의 역할: 전주 선미촌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경영학연구, 14(2), 199-226. https://doi.org/10.15333/ACM.2021.12.30.199

김옥선 (2025). 로컬의 문학적 기록 전환과 로컬리티. 로컬리티 인문학, 34, 39-64. https://doi.org/10.15299/tjl.2025.10.34.39

김용규 (2008). 로컬리티의 문화정치학과 비판적 로컬리티 연구. 한국민족문화, 32, 31-69. G704-001560.2008.32.001

김용비, 김진아 (2021). 전주 선미촌에서의 여성주의적 예술 실천의 가능성: 새 장르 공공미술 개념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3(2), 251-272. https://doi.org/10.33645/cnc.2021.02.43.2.251

김창효 (2024.01.04.). 성매매 집결지 없앤다더니 이제는 나몰라라…전주 서노송예술촌 가보니. 경향신문. 출처: https://www.khan.co.kr/article/202401041550001

김희식 (2016). 매춘공간의 포함과 배제: 공공정책의 영향을 중심으로(1876-2010).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13971681&outLink=K

류연택 (2022).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5(2), 157-166. https://doi.org/10.21189/JKUGS.25.2.10

문재원 (2016). 로컬리티 개념을 둘러싼 고민들. 로컬리티 인문학, 15, 305-314. https://doi.org/10.15299/tjl.2016.4.15.305

문준혁 (2026.05.10.). [현장] “여기는 끝났어”…전국 벤치마킹하던 예술촌이 ‘유령 마을’로. 전북일보. 출처: https://v.daum.net/v/20260510082415218

박연정, 김훈 (2019). 전주 선미촌 도시재생의 특징에 관한 연구: 거버넌스 활동과 ‘경계허물기’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0(1), 87-96. https://doi.org/10.6107/JKHA.2019.30.1.087

박은 (2024.10.22.). [흔들리는 서노송예술촌] ①서노송예술촌 왜 흔들리나? 전북일보. 출처: https://www.jjan.kr/article/20241022580177

박정미 (2011).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묵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판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0.23170/snu.000000028766.11032.0000468

박정미 (2015). 한국 기지촌 성매매정책의 역사사회학, 1953-1995년: 냉전기 생명정치, 예외상태, 그리고 주권의 역설. 한국사회학, 49(2), 1-33. https://doi.org/10.21562/kjs.2015.04.49.2.1

서정우 (2011). 광주 대인동 ‘집창촌’의 ‘매춘’ 지리학: 집창촌에서 ‘매춘여성’의 ‘포함적 배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4(3), 177-19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12380

성지은, 김경은 (2025). 문화예술 기반 도시재생 리빙랩 사례 분석: 전주 선미촌 서노송예술촌의 실험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20(5), 535-546. https://www.kci.go.kr/kciportal/ci/

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37841

소태우, 최현석 (2022). 전주 선미촌 재생 사례를 통해 본 부정적 장소기억의 전환 가능성. 인문사회21, 13(2), 1679-1694. https://doi.org/10.22143/HSS21.13.2.118

이명수 (2015). 로컬리티, 존재론적 자기 방식과 공간적 가능성. 로컬리티 인문학, 14, 327-334. https://doi.org/10.15299/tjl.2015.10.14.327

이현재 (2008). 성적 타자(sexual other)가 인정되는 도시 공간을 위한 시론: 매춘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10, 1-28. https://doi.org/10.17316/kfp.2008.10.1

임충식, 장수인 (2024.10.14.). 성매매업소만 몰아내면 끝?…선미촌 떠난 예술인들 "답답하다". 뉴스1. 출처: https://www.news1.kr/local/jeonbuk/5566609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4.10.07.). 빈 건물 대부분인 '전주 선미촌', 아파트 개발 사업 추진 바라보는 '두 시각'. 전북의 소리. 출처: https://www.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32

홍성철 (2007). 유곽의 역사. 서울: 페이퍼로드.

황수연 (2021a). 성매매 집결지의 복합적 이해와 성매매 종사자들의 투쟁: 인천시 숭의동 '옐로우하우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4(1), 91-102. https://doi.org/10.21189/JKUGS.24.1.7

황수연 (2021b). 성매매 집결지의 회복적 해체를 위한 연구: 전주시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https://hdl.handle.net/10371/178592

Agamben, G. (2008).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박진우 옮김). 서울: 새물결. (원저 Homo sacer: Il potere sovrano e la nuda vita, 1995)

Agamben, G. (2009). 예외상태 (김항 옮김). 서울: 새물결. (원저 Stato di eccezione, 2003)

Schmitt, C. (2010). 정치신학: 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김항 옮김). 서울: 그린비. (원저 Politische Theologie: Vier Kapitel zur Lehre von der Souveränität, 1922)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Hong, Sung-chul (2007). A History of Brothels. Seoul: Paperroad.

Hwang, Soo-yearn (2021a). Understanding the Dynamics of Red Light District and the Protest of Prostitutions: A Case of the Yellow House in Incheo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24(1)*, 91-102. https://doi.org/10.21189/JKUGS.24.1.7

Hwang, Soo-yearn (2021b). A Study for Reformative Dismantling of the Red Light District: The Case of the 'Sunmi-chon' Red Light District in Jeonju, Korea.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https://hdl.handle.net/10371/178592

Im, Chung-sik & Jang, Su-in (2024, October 14). Is driving out the brothels the end? Artists

who left Seonmichon say it is frustrating. News1. Available: https://www.news1.kr/local/jeonbuk/5566609

Jeonbuk Civil Coalition for Democratic Media (2024, October 7). Jeonju Seonmichon, mostly empty buildings: Two perspectives on the apartment development project. Jeonbuk Sori. Available: https://www.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32

Kang, Seul-gi (2021). The Role of Artists in Cultural Regeneration of the Red-light District: A Case Study on the Seonmi-village, *Korea. Journal of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14 (2)*, 199-226. https://doi.org/10.15333/ACM.2021.12.30.199

Kim, Chang-hyo (2024, January 4). They said they would remove the red-light district, and now they look away: A visit to Jeonju Seonosong Art Village. The Kyunghyang Shinmun. Availabl e: https://www.khan.co.kr/article/202401041550001

Kim, Hie-Sik (2016). Inclusion and Exclusion of the Red-Light Districts in Korea: Focused on the Public Policies and their Repercussions (1876-2010).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eoul. http://www.riss.kr/link?id=T13971681&outLink=K

Kim, Ok-sun (2025). Locality through Literary Representations of the Local. *The Journal of Local itology, 34*, 39-64. https://doi.org/10.15299/tjl.2025.10.34.39

Kim, Yong-bi & Kim, Jin-A (2021). The Possibility of Feminist Art Practice in Seonmichon, Jeon ju: Focus on the Concept of New Genre Public Art. *Culture and Convergence, 43(2)*, 251-27 2. https://doi.org/10.33645/cnc.2021.02.43.2.251

Kim, Yong-Gyu (2008). The Cultural Politics of Locality and the Critical Locality Studies. *Journal of Koreanology, 32*, 31-69. G704-001560.2008.32.001

Lee, Hyun-Jae (2008). Sexual Diversity and Urban Space: A Feminist Analysis on the Body-Place of Prostitute. *Korean Feminist Philosophy, 10*, 1-28. https://doi.org/10.17316/kfp.2008.10.1

Lee, Myung-soo (2015). Locality: An Ontological Mode of Being and Spatial Possibility. *The Jour nal of Localitology, 14*, 327-334. https://doi.org/10.15299/tjl.2015.10.14.327

Mun, Jae-won (2016). Concerns Surrounding the Concept of Locality. *The Journal of Localitology, 15, 305-314*. https://doi.org/10.15299/tjl.2016.4.15.305

Mun, Jun-hyeok (2026, May 10). [On site] It is over here: An art village once benchmarked nationwide becomes a ghost town. Jeonbuk Ilbo. Available: https://v.daum.net/v/20260510082415218

Park, Eun (2024, October 22). [Seonosong Art Village in turmoil] 1. Why is Seonosong Art Village faltering? Jeonbuk Ilbo. Available: https://www.jjan.kr/article/20241022580177

Park, Jeong-Mi (2011). A Study on Prostitution Policies in Korea: The Transformation of 'Toleratio n-Regulation Regime' and the Historical Construction of 'the Prostitute', 1945-2005.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0.23170/snu.000000028766.11032.0000468

Park, Jeong-Mi (2015). A Historical Sociology of the Korean Government's Policies on Military Prostitution in U.S. Camptowns, 1953-1995: Biopolitics, State of Exception, and the Parado x of Sovereignty under the Cold War.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9(2)*, 1-33. https://doi.org/10.21562/kjs.2015.04.49.2.1

Park, Yeon-Jeong & Kim, Hoon (2019).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Seonmichon Regeneration in Jeonju: Focused on the Governance's Activities and Boundary Breakdown.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30(1), 87-96. https://doi.org/10.6107/JKHA.2019.30.1.087

Ryu, Yeon-Taek (2022). Theoretical Reflections on Gentr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25(2), 157-166. https://doi.org/10.21189/JKUGS.25.2.10

Seong, Ji-eun & Kim, Kyung-eun (2025). A Case Study of Living Labs for Culture-based Urban Regeneration: Focusing on Seonosong Art Village in Jeonju Seonmichon.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Spatial Design, 20(5)*, 535-54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37841

So, Tae-woo & Choi, Hyeon-seok (2022). Possibility to Change Negative Place Memories Examined Through the Case of Sunmi-chon in Jeonju.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13(2)*, 1679-1694. https://doi.org/10.22143/HSS21.13.2.118

Suh, Jung-Woo (2011). Geography of 'Prostitution' in 'Red-Light Districts' of Daein-dong in Gwangju: 'Exclusion/Inclusion' of 'Prostitutes' in Red-Light Districts.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4(3),* 177-19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12380